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유경진** · 김응자***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 및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 변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위치한 중학교 5개교의 1학년, 2학년 학생 352명의 설문지를 ANOVA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의사소통에서 개방형 의사소통은 모가 부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와 모의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의 '정서 활용'과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정서조절'과 '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 간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부모님의 의사소통 유형은 중학생 자녀의 정서지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는 자녀와 소통을 할 때 지시하고, 판단하고, 억압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어주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자녀 대화법과 같은 개방형 의사소통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지능, 중학생

논문제출일: 2019. 10. 25. 최종심사일: 2019. 12. 6. 게재확정일: 2019. 12. 19.

*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돌고래의 꿈 대표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Eung Ja,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E-mail: eungja21@nsu.ac.kr

I.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체나 정서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덜 안정적(김예진, 2012)이어서, 우울증 유발율도 중학생(22.1%)이 고등학생(14.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주, 2012).

지금까지 연구된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 학교생활, 또래관계, 부모자녀관계(홍은희, 2012; 송미정, 2014; 백현순, 2018; 황용재, 2019)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감에 있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관련된 불안, 우울,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정옥분, 2016).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안정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남정홍(200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지니게 되는 사고, 가치관, 행동양식,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인 성장에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했다(조경은, 2008 재인용; Thomas, 1997). 부모와의 끊임없는 촉진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차유림, 2001),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정서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또래 관계 증진 및 자아존중감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여 이해하고, 자기조절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의 행동으로 이끌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여 상호작용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정서를 갖고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한다.

정서지능은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서지능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며, 가정 및 학교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김현준, 2007; Salovey & Mayer, 1997). 정서지능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기도 하면서,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비행과 공격성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감소 효과가 있으며, 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윤정, 2010).

즉 정서지능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지능을 발달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정서지능과 관련된 두뇌영역은 유년기 초기에 완성되는 지각관련 영역과 다르게 사춘기 후반인 16~18세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정서지능은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Goleman, 1995).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정서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가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정서지능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부부 상호 간에 교환되는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정서지능을 배우게 되므로(문용린, 1997; 이은경, 2014 재인용)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모색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북에 위치한 5개교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 2학년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거나 문항에 답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52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남학생 120명(34.1%), 여학생 232명(65.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80명(51.1%), 2학년이 172명(48.9%)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구성되었다.

1) -자녀 간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의사소통 측정 도구(PACI : 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수정 및 번안한 민하영(1991)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가지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와 각 요인별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다.

<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별 문항 및 신뢰도

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Crobach's α	
			부	모
개방형 의사소통	1,3,6,7,8,9,13,14,16,17	10	.885	.862
문제형 의사소통	2,4,5,10,11,12,15,18,19,20	10	.720	.694

2) 지능

본 연구에서는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인식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 6개영역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와 각 요인 별 설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정서지능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인식표현	1,6,11,16,21,26,31*,36*	8	.762
감정이입	2,7,12,17,22,27,32*,37*	8	.745
사고촉진	3,8,13,18,23,28,33,38	8	.787
정서활용	4,9,14,19,24,29,34,39	8	.678
정서조절	5,10*,15*,20*,25*,30,35*,40*	8	.655
전 체		40	.838

*역산 문항(총 10문항)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의사소통 차이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의 의사소통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1. 부-모의 의사소통 차이

부와 모의 의사소통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와 모의 의사소통 차이를 살펴본 결과 t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고 유의 수준이 .000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와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와 모의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모가 평균 3.779(SD=0.653)로 부(M=3.552, SD=0.726)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4.346, p>0.001$). 부-모의 의사소통 차이는 <표 3>과 같다.

< 표 3 > 부-모의 의사소통 차이

		N	M	SD	t	p
개방형 의사소통	부	349	3.552	0.726	-4.346	.000 ^{***}
	모	349	3.779	0.653		
문제형 의사소통	부	349	2.862	0.564	.337	.736
	모	349	2.848	0.559		

*** $p<.001$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하위구인별 상관분석 결과, 정서지능의 ‘정서활용’과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정

서지능의 ‘정서조절’과 ‘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녀 간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r=-.429, p<.01$)과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r=-.31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제외한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r=.848,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r=-.305, p<.01$)과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r=-.346,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r=.848,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 하위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정서인식은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부: $r=-.178, p<.01$, 모: $r=-.180,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감정이입($r=.494, p<.01$), 사고촉진($r=.649, p<.01$), 정서활용($r=.47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 또한 정서인식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사고촉진: $r=.457, p<.01$, 정서활용: $r=.405, p<.01$). 반면 사고촉진과 정서활용의 경우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함께 정서지능의 하위 변인인 정서조절 변인(사고촉진-정서조절: $r=-.111, p<.01$, 사고촉진-정서조절: $r=-.21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사고촉진-정서조절: $r=-.111, p<.01$, 정서활용-정서조절: $r=-.216, p<.01$), 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사고촉진-정서활용: $r=.639, p<.01$). 마지막으로 정서조절 변인의 경우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고촉진, 정서활용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부-자녀간 의사소통		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				
		부_ 개방형 의사소통	부_ 문제형 의사소통	모_ 개방형 의사소통	모_ 문제형 의사소통	정서인식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
부- 자녀 간 의사 소통	부_ 개방형 의사소통	1								
	부_ 문제형 의사소통	-.429**	1							
모- 자녀 간 의사 소통	모_ 개방형 의사소통	.770**	-.306**	1						
	모_ 문제형 의사소통	-.314**	.848**	-.346**	1					
정서 지능	정서인식	.480**	-.178**	.523**	-.180**	1				
	감정이입	.346**	-.196**	.363**	-.169**	.494**	1			
	사고촉진	.480**	-.163**	.504**	-.156**	.649**	.457**	1		
	정서활용	.315**	-.035	.358**	-.038	.472**	.405**	.639**	1	
	정서조절	.107*	-.319**	.088	-.330**	-.016	.044	-.111*	-.216**	1

*p<.05, **p<.01

IV.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 및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 변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의사소통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모가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와 모의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전윤희(2019)의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보통보다 높은 편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은 모와의 의사소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는 서예지(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와 모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부와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를 보이고 즉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반순진(2011)의 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에 어머니가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여(김지희·문숙재, 2001) 자녀와 더 많은 유대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아버지들은 자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할 것이며,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구인별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정서지능의 '정서활용'과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정서조절'과 '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소인 정서인식,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이 높아지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정서조절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감정, 의견,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5개의 중학생 1, 2학년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모든 지역 중학생들의 특성을 일반화하고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업 특성상 중학생 3학년의 설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전체적인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중학생 1, 2, 3학년의 전체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서로 간에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기 보고식 설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특성상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 설문의 응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더 민감하고 정확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윤정(2010).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17(4), 263-281.
- 김미주(2012). 남녀 중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애착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진(2012).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문숙재(2001). 가족기업 실증연구 영역 및 교과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123-140.
- 김현준(2007).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 글이랑.
- 문용린(1999).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 59집.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순진(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 변인에 따른 도시여성의 K-HTP에 의한 집그림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4(2), 107-121.
- 백현순(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기격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예지(2018). 부모애착,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가족건강성과 학교행복감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정(2014).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충동성 및 또래관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은(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규칙 및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희(2019). 부모계급, 심리적 독립,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군인의 중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16). 아동권리와 복지. 서울: 학지사.
-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희(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용재(2019). 청소년기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alovey, P., & Mayer, J. D. (1997). The Positive Psycho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Snyder, C.R.& Lopez, S. J(Eds.), NY: Oxford University Press.

Thomas, E.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Press.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Kyung-Jin Yu* · Eung-Ja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play a decisive role in the emotional s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dergoing a period of rapid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and change.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of 352 first and second graders from five middle schools in Jeollabuk-do was analyzed b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open communication was higher in parent and mother communication than wealth, and problem communic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when children talk to their parents, they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more freely in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 than with their father.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utiliz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blem-typ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child 'and' emotional control 'and' paren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of 'open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other factors.

As a result, parents' communication type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important to have open communication that respects, supports and positively accepts ideas, and needs to find ways to stimulate open communication education such as parent-child communication.

Key Words : Parent-child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Middle schooler

* Representative of Dolphin's Dream

** Professor of Child Welfare Department Namseoul University